

# 曾谷大人 崔錫起 教授의 연구 이력과 교육 활동

강정화\*

- 
- I. 들어가는 말
  - II. 연구 이력
    - 1. 南冥 曹植을 만나 南冥學에 빠지다
    - 2. 智異山學 정립의 초석을 열다
    - 3. 백두대간 洞天九曲을 누비다
  - III. 교육 활동
    - 1. 自厚薄人의 자세로 일관하다
    - 2. 꺼지지 않던 불빛, 누군가의 희망이 되다
  - IV. 나가는 말
- 

## ■ 국문요약

이 글은 2020년 8월 31일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를 퇴직한 증곡대인 최석기 교수의 연구 이력과 교육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보낸 32년 동안의 기록이다.

그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늦깎이 대학생으로 한문 공부를 시작했다. 문학에서 시작하여 經學에 안착했고, 부임 후 南冥 曹植(1501-1572)을 만나 조선시대 士大夫 정신에 매료되었다. 주말마다 오르내렸던 지리산과의 인연으로 ‘智異山學’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학계에 소개하였고, 그동안 숨어 있던 국

---

\*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부교수, 경남문화연구원장/ E-mail: h8863001@gnu.ac.kr

내 명산의 洞天과 九曲도 그를 만나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대인의 주요 연구 이력이다.

대인은 ‘자신에겐 냉정하고 상대에겐 혈령한’, 일명 自厚薄人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실천한 인물이다. 이는 굽히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가능한데, 대인은 재직기간 동안 줄곧 그 원칙을 고집스레 지켜냈다. 학업과 연구에서는 엄정하고 혹독해서 연구실 앞에 서는 이들을 늘 긴장케 하면서도, 학생의 어려움은 외면하지 못하는 여린 안쓰러움을 함께 지닌 스승이었다.

**주제어:**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 南冥學, 지리산학, 동천구곡, 자후박인

## 1. 들어가는 말

2020년 8월 31일. 증곡대인 최석기 교수가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를 퇴직하였다. 1989년 3월 3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본교에 부임하여 31년 7개월간의 長程을 끝내는 명예로운 자리였다. 師弟 간으로 만나 딱 그만큼의 세월을 함께 해온 필자에게도 그 못잖은 울림과 감동의 순간이었다. 필자는 대학 2년생으로 대인을 처음 만났고, 현재 대인이 떠난 한문학과를 지키고 있다.

대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출생하여 제대 후 늦깎이 대학생으로 한문 공부를 시작했다. 문학에서 시작하여 經學에 안착했고, 南冥 曹植(1501-1572)을 만나 조선시대 士大夫 精神에 매료되었다. 부임하면서 주말마다 오르내렸던 지리산과의 인연으로 ‘智異山學’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끄집어내었고, 그동안 숨어 있던 국내 명산의 洞天과 九曲도 그를 만나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필자가 기억하는 대인의 학문 여정의 概略이다.

그뿐인가. 대인은 굽히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고, 재직기간 동안 줄곧 그 원칙을 고집스레 지켜내는 인물이었다. 학업과 연구에서는 엄혹하고 냉정하여 연구실 앞에 서는 이들을 늘 긴장케 하면서도, 학생들의 어려움은 외면하지 못하는 여린 안쓰러움을 함께 지닌 스승이었다. 그래서 대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를 무서워하기만 했고, 대인을 아는 이들은 그 여린 마음을 먼저 알아보았다.

본고에서는 대인과 함께 한 30년의 그 올림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인은 퇴직에 즈음하여 자신의 연구성과를 착실히 정리해 10책으로 출간하였다. 이는 대인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자들이나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이끄는 주도적 삶의 자세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대인의 연구 이력과 교육 활동 중에서도 필자가 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되, 경학 분야는 기획된 다른 자리가 있다고 하여 예외로 한다. 이 글이 대인의 학자로서 교육자로서의 여정에 흠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II. 연구 이력

### 1. 南冥 曹植을 만나 南冥學에 빠지다

대인은 본교에 부임한 이래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남명 조식을 만났다. 그의 언급에 의하면, 부임 후 총장과의 첫 만남에서 받은 특명이었다고 회고했다. 1989년을 전후해 진주를 중심으로 한 慶尙右道 지역에는 南冥淵源家 후손과 독지가의 후원에 힘입어 남명학 연구 활성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교내에 3층의 南冥學館이 건립되고, 南冥學研究所가 설립되는 등 여러 굵직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그 중심으로 들

어오게 된 것이다.

그 이전까진 남명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대인은 마치 진공관에 빨려들 듯 남명에 매료되었다. 특히 出處에 엄정했던 삶의 태도, 인욕과 감정을 다스려 中道에 이르기를 추구한 남명의 학자적 자세는 그동안 해오던 공부와 다른 결이어서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남명사상의 핵심인 敬義를 도식화한 「神明舍圖」와 「神明舍銘」에 관한 대인의 집약된 연구<sup>1)</sup>는, 남명학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어렵게만 느끼고 걸돌던 남명학의 핵심을 精緻하고도 간명하게 풀어냄으로써 후속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명의 '경'을 직접 들어본다.

남명이 말한 '敬'은 '나'라는 인간이 하늘을 대할 때의 마음이다. 옛말에 '敬天愛人'이라 하였다. '하늘을 공경하고 人民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옛사람들은 하늘을 공경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본성을 따르는 것'을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보았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끝까지 마음을 붙잡았다. [操心] 그리하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삼가며 [戒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 [恐懼] 하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남명이 말한 '경'은 바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른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스승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곧 공경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sup>2)</sup>

남명학 연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2007년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장을 맡으면서 더욱 빛을 발하였다. 남명학과 관련해 산발적으로 행해

---

1) 최석기(1994), 「南冥의 〈神明舍圖〉·〈神明舍銘〉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4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55-193쪽.

2) 최석기(2005), 『나의 남명학 읽기』, 경인문화사, 88쪽.

지던 연구소의 각종 사업이 그로 인해 체계성을 갖추었고, 장기·중기·단기 계획에 의한 순차적 프로그램이 비로소 틀을 갖추게 되었다. 대인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가 강우지역의 남명 및 남명학과 연구를 총괄해야 한다는 거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체와 규모를 찾기 위한 대장정의 연구를 기획하였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기에 자료조사, 연구와 학술, 출판과 대중화를 병행하여 기획하였고, 한문학과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갔다. 그의 과감한 추진력과 탁월한 해안에 의해 강우지역의 남명학 및 남명학과는 그 정체성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었다. 누구보다 큰 그림을 잘 그렸고, 진행 과정에서 빠진 것을 거둬가면서 성과를 꼭 채워나가는 섬세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대인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내가 만약 경상대학교에 부임하지 않았다면 평생 남명을 몰랐을 것이고, 그랬다면 얼마나 후회했겠냐고. 남명에 매료된 대인의 진한 애정 덕분에 남명학연구소는 지금도 국내 대학 연구소 가운데에서 지역학 연구의 대표 기관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 2. 智異山學 정립의 초석을 열다

2007년 여름, 교육부 주관 하에 시행된 인문한국(HK)지원사업이 국내 인문학계를 뒤흔들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이후에도 없을 법한, 한국의 인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장기발전 프로젝트였다.

당시 교내 경남문화연구원장이었던 대인은 이 사업의 유치를 위해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과 컨소시엄하여 '지리산권문화연구단'을

결성하였다. 영·호남 지리산권역에 소재하는 두 국립대학교의 두 연구소가 어우러져 지리산의 문학·철학·역사·생태 등을 10년간 연구하였다. 말 그대로 '지리산의 인문적 요소를 찾아내고 학문 영역으로 끌어들이 學籍化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초유의 성과이며, 국내 학계에 '산의 인문학'의 가능성을 열어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 중심에 대인이 있었다.

대인의 지리산 사랑은 한문학과에 부임하여 지리산의 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강의와 연구에 지친 심신을 지리산을 오르는 것으로 해소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리산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렇게 10년쯤이 지난 1998년 어느 날, 대인은 본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제자 4인과 함께 '두류고전연구회'를 만들었고, 우선 우리 지역의 자료부터 발굴하여 정리하자는 취지로 '지리산유람록' 번역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매주 주말과 휴일에 모여서 강독과 윤문 작업을 병행하였다. 비록 책상에서 지리산 골짜기를 오르내렸지만, 선봉에서 이끄는 대인이 워낙 지리산 마니아였기에 산길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2년의 노력 끝에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보고서, 2000)이다. 이후 지리산을 중심에 둔 인문한국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중단되었던 번역 작업을 진행해 지리산유람록 1백여편을 모두 6책으로 완역하고 출간할 수 있었다.

주지하듯 등산 인구의 천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은 배움의 場으로 주목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 수십 개의 국립공원사무소는 해당 명산의 인문학적 資産을 찾아내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각종 강좌를 개최하고 저서를 출간하는 등 예년에 없던 다양한 현상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학계에서도 '산의 인문학'이 21세기의 미래지향적 연구 영

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의 명산 가운데 유람록을 완역하여 대중화한 것은 지리산이 최초이다. 더구나 유람록 완역과 전문연구를 병행한 명산은 지리산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지리산유람록 번역 출간은 다양한 분과 학문으로 연구를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 책의 출간 이후 지리산권 문화와 관련하여 민속·종교·관광·역사·조경 등 여러 분과에서 전문 연구실적이 폭증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화 방면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대인이 있었다. 그 역시 전문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좌에 초빙되어 '산과 사람' 간의 조화로운 삶을 전파하였고, 분명하고 명쾌한 언변에 힘입어 자주 찾는 명강사 타이틀을 얻기도 하였다.

끝으로 대인이 평생 가슴에 새기며 자주 언급한 名言을 소개한다. 바로 남명 조식의 「遊頭流錄」에 보이는 '看水看山 看人看世'라는 여덟 글자이다. 남명은 58세 때 지리산 유람을 통해 아름다운 산수를 보았고, 그 속에서 살다 간 사람들을 보았으며, 그 삶을 통해 그 시대를 이해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사는 當代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대인은 남명의 이 말에서 당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이 시대 지식인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삶의 자세라 강조하였다.



(지리산유람록 번역서)

### 3. 백두대간 洞天九曲을 누비다

학자로서의 학문 여정에서 타 분과 연구자와 뜻이 맞아 십수 년을 함께 공부하고, 게다가 그 인연으로 자신의 학문 영역을 확대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또한 天運이라 할 수 있다. 대인의 학업 여정에는 이러한 천운도 함께 하였으니, 곁에서 지켜보는 필자조차도 부럽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대인과 뜻이 맞는 본교 동료 중에서 지리학 전공의 두 분이 특히 오랜 친분을 유지하는 학문적 동지였다. 처음에는 의기투합한 셋이 모두 현장 답사를 즐겨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자 다른 시각으로 같은 공간을 본다는 그 호기심이 서로를 끌어당겼다. 이후 셋이 함께하는 작업이 많아졌



는데, 주로 대인이 옛 문헌을 찾아 원문 번역과 함께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두 지리학자가 문화역사와 지형학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합이 좋았던 세 사람은 전국의 이름난 동천과 구곡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조선시대 이름났던 동천으로는 지리산에만도 하동 靑鶴洞과 花開洞, 산청 大源洞과 德山洞, 함양 百巫洞 등이 있고, 그 외에도 현 거창과 함양 일대의 安義三洞, 속리산 牛腹洞, 가야산 紅流洞 등이 떠오른다. 구곡으로 이름난 곳도 적지 않은데, 예컨대 退溪 李滉(1501-1570)의 陶山九曲, 栗谷 李珣(1536-1584)의 高山九曲, 尤庵 宋時烈(1607-1689)의 華陽九曲 등이 있다. 이들 공간은 대개 특정 인물에 의해 그들 학파를 중심으로 聖地처럼 전승되었고, 지역적 특색을 대변하는 문화적 장소 역할도 톡톡히 하였다. 그렇지만 대개는 골짜기 속에 묻혀 있거나, 찾더라도 그 속에 투영된 공간적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전국 명산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골짜기가 이들 3인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특히 대인은 옛 기록에 기초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였고, 현장을 누비면서 획득한 결과물을 연구논문과 저술로 보여주었다. 예컨대 안의삼동 중 猿鶴洞에 대한 책<sup>3)</sup>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경남지역에서 명승 답사 분위기를 유행시켰고, 남명학으로 대표되는 지리산 덕산동은 道學의 聖地로 정체성을 확립해 주었으며,<sup>4)</sup> 특히 지리산 화개동<sup>5)</sup>과 백무동<sup>6)</sup>을 각각 이상향과 민속신앙의 산실로 특징 지움으로써 지리산의 주요 골짜기를 개괄하는 쾌거를 올렸다.

무엇보다 德山九曲 설정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도산구곡에 대한

---

3) 최석기(2015), 『조선 선비들의 답사일번지, 남도 제일의 명승 원학동』, 지앤유.

4) 최석기(2020), 『조선 도학의 성지, 지리산 덕산동』, 지앤유.

5) 최석기(2020), 『한국인의 이상향, 지리산 화개동』, 지앤유.

6) 최석기(2020), 『한국 무속신앙의 산실, 지리산 백무동』, 지앤유.

퇴계학과의 활동을 접한 대인은 남명의 덕산동에 구곡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였고, 지금이라도 설정해야 할 당위성을 인식하여 직접 덕산구곡을 설정하고 九曲詩를 지었다. 남명에 대한 애정과 평소 한시를 즐겨 짓던 대인의 성정이 고스란히 가미된 새로운 작업이라 하겠다. ‘지역학의 발전’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德山九曲圖」를 포함한 관련 내용은 대인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sup>7)</sup>

### III. 교육 활동

#### 1. 自厚薄人の 실천으로 일관하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에겐 스스로 두텁게 질책하고 남에겐 가볍게 질책한다면 원망이 멀어질 것이다.”<sup>8)</sup>

인간은 대인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다. 한 발짝만 물러나 바라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자신에겐 험령하게 그리고 상대에겐 아주 혹독하게 평가한다. 공자는 이와 반대로 ‘자신에겐 아주 혹독하게 평가하고, 남에겐 가볍게 질책’하는 自厚薄人の 자세를 강조하였다. 그만큼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두 번 실천으로도 안 되고 ‘지속적’일 때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찌야 하는가.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원칙이 분명하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신을

7) 최석기(2020). 「덕산구곡 설정의 필요성과 의의」, 『선인들의 산수 인식과 동천구곡 문화』, 보고사, 232-275쪽.

8) 『論語』 「衛靈公」. “躬自厚而薄責於人, 則遠怨矣”

혹독하게 단속하는 자기절제가 있어야 그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증곡대인은 필자가 만난 사람 중에서 이를 가장 잘 실천해 온 인물이다. 두어 가지만 소개해 본다.

첫째, 증곡대인은 '1교시 전담 교수'였다. 그는 재직하는 동안 모두가 꺼리는 1교시 강의를 자처해 전담하였다. 經傳講讀 관련 강의를 주로 맡았고, 대개 전공필수 교과였다. 그런데 대인은 한 술 더하여 8시 50분이면 어김없이 강의실에 들어섰고, 55분이 되면 강의실의 뒷문을 잠그고 교탁에서 앞문으로 들어서는 학생을 맞았다. 물론 지금 젊은 교수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증곡대인은 퇴직할 때까지 이를 지켜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동안 학생들의 불만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는 첫 시간에 수강생에게 학생으로서의 '성실함(誠)'을 요청하였고, 자신도 지켜내기로 약속했고, 그것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였다. 언제나 그 시간이면 대인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이 대인보다 먼저 등교하기 시작했고, 갓 일어나 밤송이처럼 뺨친 머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제시간에 도착해 눈곱을 떼어내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는 대인이 말없이 그저 몸으로 보여주었기에 가능하였다. 반드시 언성을 높이고 학점으로 협박할 필요가 없었다. 학생들이 미안해서라도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희한한 재주가 있었다.

둘째, 대인은 '연구실 지킴이'였다. 요즘 학생들의 용어로 하자면 일명 '연구실돌이'이다. 대인은 늘 말했다. '교수의 임무는 교육과 연구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부해야 하고, 그러려면 연구실을 지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필자가 아는 '대인의 원칙' 중 하나는 '1년 12달 365일 중 연구실을 비우는 날이 60일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60일' 안에는 '일요일·공휴일·명절'에 '집안제사·가족모임'까지 포함된다. 1년이 52주

이니 말해 무엇하랴. 그러다 보니 대인은 연구실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나누어 왔다. ‘언제 찾아가도 선생님은 연구실에 계신다’고.

필자의 연구실은 대인의 연구실 옆에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나가도 대인은 연구실에 있었다. 잠겨진 날이면 되레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할 지경이었다. 그것이 교수자의 책무라 생각했고, 대인은 직접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셋째, 대인은 ‘講讀의 아이콘’이었다. 대인의 수많은 성과물을 살펴보면 유독 눈에 띄는 점이 있다. 바로 저서 출간물 중에 공동저자가 많은데, 그들이 대개 그다지 이름나지 않은 박사급 연구원이거나 대학원 재학생이라는 점이다. 이는 대인이 본과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들과 스터디를 통해 산출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대인의 강독은 앞서 소개한 지리산유람록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이 끝나갈 즈음 朱子 및 性理學과 관련한 새로운 작업을 동시에 준비하였다. 조선시대 학술 및 한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의 공부が必要하다고 판단하고, 당시 석사·박사 과정생을 중심으로 새로운 강독을 시작하였다. 역시 매주 주말은 강독하는 날이었다. 각자 맡은 분량을 준비해 오면 강독을 통해 원고의 문구까지 다듬었고, 그 분량이 끝나야만 마칠 수 있었다. 혹여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만나 시간이 늦어지면 휴일에 다시 모이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과물이 『朱子』<sup>9)</sup>·『宋元時代 학맥과 학자들』<sup>10)</sup> 등이다.

---

9) 최석기 외(2005), 술이.

10) 최석기 외(2007), 보고서.



朱子墓(上左) & 祝夫人墓(上右)  
朱子巷(下左) & 朱子故居(下右)

이 가운데에서도 『朱子』는 관련 유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 확인이 불가피했다. 우리는 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유적지 확인 작업을 기획하였고, 사전에 강독을 끝낸 원고를 들고 중국 복건성과 강서성 중심으로 주자 유적지를 탐방하였다. 주자 묘소에서는 그의 삶을 되돌아 보았고, 어머니 祝夫人의 묘소에서는 시묘살이하던 주자가 학문적 精髓를 체계화했다는 寒泉精舍를 생각했으며, 武夷山을 오르고 九曲을 타고 내려오면서 「武夷樵歌」의 정취를 음미하였다. 그뿐인가. 주자가 어릴 때 서당 다니던 골목이라는 朱子巷에서는 그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고, 복건성 南平市 尤溪에서는 尤庵 宋時烈的 염원까지 떠올렸다. 우리는 돌아와 원고 수정 작업을 거쳐 마무리하였고, 부끄럽지 않은 성과물을 세

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대인이 기획했고, 필자는 그저 실무담당이었다. 그 오랜 시간 그가 선두에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이후 대인의 강독은 본교의 남명학연구소가 한국고전번역원이 주관하는 권역별거점번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 사업의 특성상 강우지역 남명학과 인물의 문집을 번역하면서도 강독 클러스터(cluster)를 활용해 남명학과 인물 연구에 필요한 생애 자료의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6-7명의 대학원 박사수료생과 재학생으로 강독반을 구성하고 매주 모여서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2년에 한두 책씩 6년에 걸쳐 모두 4책을 출간하였다.<sup>11)</sup>

그 어떤 高手나 대학자도 혼자보다 여럿이 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고, 그 전통이 후학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대인의 지론이었다. 그리고 그 성과물에는 반드시 모든 이들의 이름을 함께 올려서, 성취감을 느끼고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였다. 지칠 줄 모르는 대인과의 공동 작업은 고달픈 과정임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대인과 함께하기를 희망했다.

그 영향으로 본과에는 유독 강독 스터디가 많았다. 교수가 이끄는 강독도, 학생들의 자체 스터디도 왕성하게 이루어져 왔다. 지금이야 대인도 떠났고, 한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달라진 데다가 코로나19 상황도 겹치면서 상황이 변했지만, 머잖아 대인이 꿈꾸던 그 시절의 왕성한 활동이 곧 재개되리라 기대해 본다.

---

11) 최석기 외(2012), 『남명 조식의 문인들』, 보고서; 『19세기 경상우도 학자들 上』, 보고서, 2012; 『19세기 경상우도 학자들 中』, 보고서, 2014; 『19세기 경상우도 학자들 下』, 보고서, 2016.

## 2. 꺼지지 않던 불빛, 누군가의 희망이 되다<sup>12)</sup>

필자는 오늘도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다. 세상을 바꿀만한 큰 일을 하는 것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여지없이 오늘도 늦은 밤까지 연구실의 불을 밝히고 있다. 늦은 시간 불 꺼진 교정을 나서면 으레 고개를 들어 남명학관을 올려다보곤 한다. 이는 대인의 연구실 불빛을 확인하는, 필자에게 매우 오래된 습관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인의 연구실은 늘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스승은 학생에게 공부하라 재촉하지 말고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인의 확고한 의지였다. 대인의 연구실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저녁 10시 이후에야 불이 꺼졌다. 교내 여느 건물보다 높은 지대에 있고, 게다가 꼭대기 층에 위치한 대인의 연구실 불빛은 늦은 밤 온 교정을 밝혀 주었다.

창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뿜어 나오는 그 불빛을 보고 있노라면 어린 필자의 마음 한 켠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두려웠었다. 지금은 대인이 떠나고 없는데도 연구실을 올려다보는 필자의 습관은 여전하고, 예전의 그 두렵던 마음도 여전하다. 이 두려움의 시작은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그 기억의 언저리에 닿을 듯하다.

여느 학과든 창립 초기의 어려움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한문학과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교수진의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하였는데, 특히 대인의 열의는 학생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정도였다. 예컨대 2학년 대상으로 시작된 주당 3시간 논어 수업은 학생들과 상의도 없이(?) 10시간으로 늘려 朱子 註釋을 다 읽어주었고, 과목별 경쟁이라도 하듯 매

---

12) 이 章은 필자가 2008년 한문학과 20주년을 기념해 대인을 염두에 두고 썼던 원고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주 엄청난 물량의 과제를 쏟아내었다. 학생들은 놀고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다.

어느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별명이 나돌기 시작했다. 당시 크게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 「개구쟁이 스머프」였는데, 그 착한 스머프들을 괴롭히던 상대 역이 바로 가가멜이었다. 우리는 대인을 ‘최 가가멜’이라 부르며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고 내심 기대했지만, 대인은 되레 그 별명을 아주 자랑스럽게 받아들였다. 행여 휴강이라도 한 번 해줄까 하여, 당시 유행하던 노랫말을 改辭해 수업시간에 불러보기도 했다. 아주 유치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을 담은 내용이었지만, 수업만큼은 한 번도 휴강이 없었다.

그렇게 한창 전공 공부의 재미를 알아갈 즈음, 늦은 밤 열람실을 나서면 죄다 불 꺼진 건물에 유독 대인의 연구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늘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니 당연하다고 여겼던 처음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학과의 자긍심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가슴 한 칸이 충만해지는 벽참이 솟구쳤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고 후원해 줄 것 같아 든든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두려워졌다. 학년이 올라가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점점 더 두려워졌다.

필자 또한 대인의 뒤를 이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강의시간이면 으레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밑바탕엔 언제나 꺼지지 않던 그 불빛이 있었기 때문이라 결론 내리곤 한다. 현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의 위상은 그 불빛 덕분이라 믿고 있다. 꺼지지 않던 그 불빛은 필자에겐 희망이었다. 그 불빛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필자가 그 불빛을 밝히고 있다. 이전의 그 불빛이 필자에게 희망이었듯, 지금 내가 밝히는 이 불빛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귀가할 때면 으레 내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다는, 학생들의 말을 자주 들곤 한다. '내가 그랬듯 또 다른 누군가가 지금의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온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어쩌면 필자가 오늘도 늦은 밤까지 연구실의 불을 밝히고 있는 건 그때 그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불빛은 그때도 두려웠고, 지금도 두렵다. 앞으로인들 두렵지 않으랴.

#### IV. 나가는 말

필자에게 대인은 嚴師이다. 자신에게 유독 엄했고, 여느 스승과 달리 목표치가 높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늘 버거운 존재였다. 대인은 언젠가 말했다. '평균에 맞추어 수준을 낮추는 것보단 목표치를 높게 잡아 몇이라도 따라오는 학생이 있게 해야 하며, 그들이 중간 계층의 학생을 손잡고 나아가게 해야 한다'고. 예시도 대인답다. 지리산 등반에서 애초 최고봉인 천왕봉(1945m)을 목표로 삼아야 턱밑에 있는 법계사(1450m)까지라도 올라가는데, 등반의 시작점인 중산리가 목적지라면 집에서 출발이라도 하겠느냐는 것이다.

대인의 이러한 면모는 그 당시엔 학생들의 기피와 불만을 도출하곤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 비록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를 관통하는 大概는 대인의 이런 고집스러움 덕분

이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를 감안하면서도 대인의 뜻을 계승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것만이 後進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참고문헌〉

##### 〈원전자료〉

『經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8.

##### 〈연구논저〉

최석기(1994), 「南冥의 〈神明舍圖〉·〈神明舍銘〉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4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최석기(2000),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보고서.

최석기(2005), 『나의 남명학 읽기』, 경인문화사.

최석기 외(2005), 『주자』, 술이.

최석기 외(2007), 『송원시대 학맥과 학자들』, 보고서.

최석기(2015), 『조선 선비들의 답사일번지, 남도 제일의 명승 원학동』, 지앤유.

최석기(2020), 『조선 도학의 성지, 지리산 덕산동』, 지앤유.

최석기(2020), 『한국인의 이상향, 지리산 화개동』, 지앤유.

최석기(2020), 『한국 무속신앙의 산실, 지리산 백무동』, 지앤유.

최석기(2020), 「덕산구곡 설정의 필요성과 의의」, 『선인들의 산수 인식과 동천구곡 문화』, 보고서.

## Research History and Educational Activities of Jeunggokdaein Professor Seok-gi Choi

Kang, Jeong-hwa \*

This article summarizes the research history and educational activities of Jeunggokdaein Professor Seok-gi Choi, who retired from the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n August 31, 2020. It is a record of 32 years spent by him as an educator and researcher.

He was born in Wonju, Gangwon Province, and started studying Chinese characters as a late college student. He started with literature and settled i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and after appointed as a professor, he encountered Nammyeong Sik Jo (曹植 1501-1572), and was fascinated by the spirit of gentry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Through his relationship with Jirisan Mountain, which he climbed up and down every weekend, he introduced a new field of study termed 'Jirisan Study', and the beautiful scenery surrounded by mountains and rivers and beautiful valleys in famous mountains in South Korea, which had been hidden thus far, became to be revealed after encountering him. The foregoing is the main research history of him.

He is a person who has consistently practiced the attitude of 'being cold-hearted to himself and generous to others'. This is possible only when one has his/her own unbending principle, and he has persistently held fast to that principle throughout his tenure of office. He was a teacher who was rigid and

---

\*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Director of the Gyeongnam Cultural Research Institute / E-mail : h8863001@gnu.ac.kr

severe in studies and research so that everybody standing in front of his laboratory became nervous while having the tender mind unable to turn away from students' difficulties.

### **Key Word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Nammyeong studies(南冥學), Jirisan Study, beautiful scenery surrounded by mountains and rivers and beautiful valleys, being cold-hearted to oneself and generous to others

논문접수일: 2020. 1. 9, 심사완료일: 2021. 2. 1, 게재확정일: 2021. 2. 3